

일본 근대불교계의 전쟁에 대한 인식 연구*

—『선과 전쟁』과 市川白弦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태승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I. 서론

II. 『선과 전쟁』에 나타난 불교가의 전쟁인식

1. 『선과 전쟁』의 일본어 번역판의 영향
2. 皇道佛敎의 展開
3. 佛敎家의 전쟁옹호
4. 기성교단의 전쟁협력

III. 이치카와 하쿠젠의 불교계 책임론

1. 불교계 전쟁책임론 제기
2. 전쟁에 대한 일본불교계의 논리
3. 이치카와 하쿠젠에 대한 평가

IV. 결어

* 이 연구결과물은 2012학년도 위덕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연구과제번호 UD12021003).

메이지유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근대에 있어 불교는 역사상 초유의 탄압을 받는다. 곧 메이지유신 이전 도쿠카와 막부의 에도시대에 國敎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불교가 근대의 初頭부터 국가에 의한 탄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탄압의 배경에는 권력의 중심을 천황에 두고 그 천황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神道에 국교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메이지정부의 방침이 있었던 것이지만, 국가에 의한 불교탄압은 역사상 초유의 일로서 불교계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불교탄압이 廢佛毀釋이라 불리어 진행되지만 불교계 또한 그러한 난관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모습이 폐불훼석 초기 결성된 諸宗同德會盟의 모임이며, 그와 같은 불교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메이지 중기이후에 불교계는 신도와 동등한 종교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렇게 불교계는 메이지유신 이후 국가적 탄압을 극복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 반면, 일본 국가는 근대초기의 서구문물의 유입을 통한 체제정비 이후 천황중심의 강력한 국가체제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적 체제는 근대 중기이후

의 일련의 전쟁을 통해 군국주의의 형태를 띠게 되고, 그러한 군국주의 체제는 태평양전쟁까지 이어져 결국 1945년 패전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본고는 근대 폐불훼석을 극복한 불교계가 이러한 군국주의 일본의 사회체제와 어떻게 관계하고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살펴본 것으로 특히 전쟁과 관련된 불교계의 입장을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위해 近年 근대 일본불교계와 전쟁의 관계를 다루어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브라이언 빅토리아의 『선과 전쟁(Zen At War)』을 근거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아울러 빅토리아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이치카와 하쿠젠(市川白弦, 1902-1986)에 대해 살펴보았다. 빅토리아는 미국인으로 일본에 와 曹洞宗의 禪僧으로서 수행을 하는 일면 불교와 전쟁에 대해 오랫동안 고뇌와 사색을 바탕으로 그 자료를 모아 이와 같은 저서를 공간하였지만,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데에는 이치카와 하쿠젠의 영향이 컸다고 밝히고 있다. 이치카와는 臨濟宗의 승려로서 전후 불교계의 전쟁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촉구한 『佛敎者の戰爭責任』(春秋社, 1970)을 출간한 불교계의 양심적인 인물로 간주되지만, 실제 그의 저술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빅토리아의 『선과 전쟁』이 출간된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치카와를 비롯한 불교계의 전쟁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에 의거해 일본의 불교계는 終戰이후 거의 4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쟁에 대한 반성을 교단별로 밝혔지만, 빅토리아의 저술이 일본어 번역판으로 출간된 2001년 이후 보다 많은 불교교단이 전쟁에 대한 반성을 표명하였고 더불어 일본의 불교학계에서도 전쟁과 사회의 책임에 대해 학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그간 사회적인 문제에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던 불교학계의 자세에 대해서도 반성과 책임을 촉구하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본불교학계의 전쟁책임이나 사회윤리에 대한 학술적인 조명은 단순히 일본불교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 의해 식민지를 경험한 우리에게도 중요한 현실인식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불교계의 윤리의식을 넘어 우리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의식과도 관련되는 폭넓고 중요한 문제제기로, 여전히 불편하게 지속되는 한일관계에 새로운 사회인식과 도덕의식을 제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주제어

메이지유신, 페불훼석, 근대일본불교, 선과 전쟁, 브라이언 D. 빅토리아, 이치키와 히쿠겐, 일본군국주의, 전쟁책임

I. 서론

필자는 일본근대불교의 시작으로서 메이지(明治) 시대 초기에 일어난 불교탄압 즉 廢佛毀釋과 그것에 대한 극복과정에 관심을 갖고 이전 몇편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¹⁾ 곧 일본근대의 시작인 메이지 유신은 서구의 문물을 받아드리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만들어 일본으로 하여금 서구의 제국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이면에 불교계로서는 有史 이래 국가권력에 의한 최초의 본격적인 불교탄압이라는 새

1) 필자가 그간 발표한 논문과 역서는 다음과 같다.

「日本 明治時代の 廢佛毀釋의 展開와 그 原因에 대하여」(제45회 한국불교학회 추계발표, 2006, 11.)

「일본 明治時期的 佛敎의 전개와 近代佛敎學의 성립」(『한국불교사입문』, 지식산업사, 2013, 9)

「일본 근대에 있어 神道와 佛敎의 갈등」(서울대역사연구소 주최 국제학술대회 발표, 2012, 11)

[역서] 스에키 후미히코 지음, 『근대일본과 불교』, 이태승·권서용 옮김, (서울:그린비, 2009,9.)

로운 양상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적인 불교탄압으로서 폐불훼석의 사건은 메이지 정부의 神道國教化 정책에 기인된 의도적인 것으로, 이 사건에 의해 불교계는 가히 전례없는 타격을 받게되었다. 특히 에도막부 시대 국교적 지위에 있었던 불교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불교탄압의 사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새롭게 적응하는 동력을 갖추게 되었다. 폐불훼석이 일어난 초기부터 불교계의 단합으로 조직된 諸宗同德會盟의 활동을 바탕으로 많은 불교가들에 의한 불교부흥의 노력은 大敎院 설립과 반대 운동을 거쳐 불교계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정부로부터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곧 내무성의 社寺局 설치에 의해 신도와 불교의 동등한 관리가 이루어져, 국가에 의해 불교계는 신도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메이지 정부의 국교로서 이념적 역할을 한 신도는 후에 종교적 성격을 갖는 신도로서 敎派神道와 비종교적인 성격의 國家神道로 구분되어 국가신도가 메이지 정부의 사상적 종교적 이념을 제공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국가신도의 이념적 정점에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제가 있어 국가신도는 천황과 천황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이념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필자가 살펴본 바로는 일본 근대초기의 불교의 역사적 전개는 불교의 탄압이라는 폐불훼석과 그것에 대한 극복의 과정으로, 그러한 극복의 과정에서 불교계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하는 당위성과 의무감을 바탕으로 불법전파와 사회활동을 적극 시도하였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애초 일본근대초기의 불교에 관심을 가졌던 배경에는 그와 같은 폐불훼석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오늘날과 같은 수준 높은 불교학의 전개가 어떠한 배경으로 성립되고 전개되었는가에 대한 의문

에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적어도 근대의 역사 속에서 軍國主義 대두 이전에 그 해답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곧 일본의 사회체제가 본격적인 군국주의 노선으로 접어들면서는 일본의 불교계는 군국주의와 손을 잡고 그 노선에 적극 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일본사회가 국가신도를 바탕으로 군국주의의 전쟁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인륜의 보편적 정신체계를 지향하던 일본의 불교계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을까? 군국주의 일본이 본격 전쟁으로 돌입하였을 때 불교는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은 필자가 이전 논문을 쓰면서 자연스레 생겨난 것이기도 하지만, 폐불훼석을 극복한 뒤 불교계가 일본사회의 중요한 정신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과정과 군국주의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변동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까닭에 생겨난 의문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근대의 군국주의화 과정에서 치러진 일련의 전쟁 즉 淸日戰爭(1894-95), 露日戰爭(1904-05), 第1次世界大戰(1914-1919), 滿洲事變(1931,9), 中日戰爭(1937,7), 太平洋戰爭(1941-45)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변동가운데 불교계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대처했는가에 대한 의문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에 답을 주는 저술, 논문들은 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하여 필자로서는 감히 그 정리에 엄두를 내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의 정리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큰 행운으로, 그것이 곧 1997년 미국에서 출간되어 전세계적으로 번역되어 알려진 브라이언

빅토리아의 저서 『선과 전쟁』과의 만남이었다.²⁾ 저자인 브라이언 빅토리아는 미국인 선교사로서 來日하였지만, 일본 조동종의 승려로 출가하여 생활하였고, 이 책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선종간의 관계에 대해 자료를 모아 연구하여 저서로서 정리한 것이었다. 이 저서는 군국주의 시대의 일본불교의 실상을 전세계에 알린 저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실제 일본에서 이 책에 대하여 본격적인 관심과 연구가 나온 것은 2001년 일본어번역판이 나오면서부터이다. 이 일본어 번역판이 나온 것을 계기로 새롭게 전쟁과 관련된 일본불교계의 역할과 책임 등이 거론되고 또한 그간 그다지 크게 언급되지 않았던 일본 불교계의 전쟁책임론 등이 새롭게 조명되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본격적인 조명을 받게 된 사람이 전후 일본불교계의 전쟁책임론을 최초로 거론한 이치카와 하쿠젠(市川白弦, 1902-1986)으로, 이치카와의 저술은 실제 빅토리아의 『선과 전쟁』이 저술되는 원초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치카와의 전쟁책임 내지 반성과 관련된 근래의 연구는 불교의 사회참여 내지 사회윤리

2) Brian (Daizen) A. Victoria, *Zen at War*, (Weatherhill, Inc., New York, 1997); [Second Editi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6), 필자가 참고한 것은 제2판의 원서이다. 이 책의 일본어번역판은 다음과 같다. 브라이언·안드루·빅토리아 著, 에이미·리즈·ツジモト 訳, 『禪と戦争 - 禪仏教は戦争に協力したか』, (東京:光人社, 2001, 5) 본서에 대한 한국어 역은 다음과 같다. 브라이언 다이젠 빅토리아 지음, 정혁현 옮김, 『전쟁과 선』, (서울: 인간사랑, 2009, 11.) 한국어로 번역한 정혁현씨는 현재 목사로 한살림교회를 운영하고 있다(역자이력). 한국어역은 빅토리아의 제2판 영어 원서를 번역한 것으로, 실제 일본인의 인명이나 지명 및 기타 참고문헌 등에 대한 일본어 원본의 확인이 없는 까닭에 인용하기엔 한계가 있어, 필자는 전적으로 일본어 번역판을 참고하고 따라서 본서에서도 책의 명칭은 『선과 전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참고로 빅토리아는 *Zen at War* 이후 2003년도에 *ZEN WAR STORIES* (Routledge)를 출간하였다. 이 책도 근년 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브라이언 다이젠 빅토리아/박광순 옮김, 『불교파시즘』, (서울: 교양인, 2013, 4)

에 대한 새로운 자극을 일본사회에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 또한 불교계와 전쟁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던 중 『선과 전쟁』, 그리고 이치카와 하쿠젠 등을 새롭게 만나 그에 대한 연구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도하는 것이 본 논문이다.

본 논문은 이렇게 그간 필자가 관심을 가졌던 일본불교계의 전쟁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선과 전쟁』 그리고 이치카와 하쿠젠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아, 일본 근대불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로 집필된 것이다.

II. 『선과 전쟁』에 나타난 불교가의 전쟁인식

1. 『선과 전쟁』의 일본어 번역판의 영향

『선과 전쟁』의 제1판인 영어판은 1997년 미국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브라이언 A. 빅토리아로서, 그는 1961년 미국에서 양심적 징병기피자로서 일본과의 친선을 장려할 목적의 선교사 신분으로 일본에 왔다. 이 당시 그는 이미 기독교에 있어서의 聖戰의 역사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에 와서는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조동종 승려로 출가하였고, 프롤로그에도 나와 있듯 1970년봄 당시 베트남 反戰運動과 관련된 曹洞宗 高僧과의 일화가 그의 본저서가 생겨나게 된 원초적 이유가 되었던 것 같다. 곧 조동종의 고승으로부터 승려는 베트남 반전운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엄한 경고를 받았던 것을 계기로 불교와 전쟁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한 생각은 당시 하나조노(花園) 대학의 학생이자 臨濟宗의 승려인 이치카와 하쿠젠의 저서들을 만나 보다 구체화되어 본 연구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치카와의 저서들은 불교의 전쟁책임론을 분명히 다룬 전후 최초의 저서들이지만, 실제 일본의 불교학계에서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이치카와의 저서들에 자극을 받고 일본군국주의와 관련된 불교계의 동향, 불교가의 견해등을 총체적으로 모아 완성된 것이 『선과 전쟁』이다. 프롤로그에서 빅토리아는 이치카와가 일본의 선승들이 군국주의에 적극 협력하였던 여러 가지 발언들을 소개하고 알린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치카와 하쿠젠은 이와같은 문장을 전시중 혹은 전전에도 수차례 반복하여 선의 지도적 입장에 있던 자들이 말하고 있었던 것을 폭로하였다. 일찍이 니와 렌보(丹羽廉芳)가 젊은 날 나에게 “선승인 자,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라고 경고했지만, 이것은 완전히 모순된 시점에 지나지 않는다. 전시중에 희생된 수천 수만의 일본인 그리고 외국인의 죽음을 누가 정치와 관련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이세츠(大拙)나 소가쿠(祖岳) 그리고 다른 선의 지도자들의 호전적인 발언에 어디를 ‘비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³⁾

빅토리아는 특히 일본의 불교가에 의해 불교는 전쟁이나 정치와는 그다지 관계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서양인의 일반적인 불교인식에 대

3) 『선과 전쟁』 p.13.

해 실제 불교가 정치나 군국주의에 동조하거나 협력한 점이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 의도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에펠로그에도 나타나 있듯 이러한 군국주의와의 관계 등에 대한 폭로는 사실 일본인 스스로는 하기 어려운 과제이었고, 오히려 누군가가 해주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분명한 길을 모두가 함께 가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빅토리아는 에펠로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본서의 목적은 일본 군국주의를 장려한 불교승과 학자를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역사속에 숨겨진 거울을 닦는 것으로 그 전체상을 명확히 하려고 한 것을 거듭 말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닦여진 거울이 왜 극딤 없이 불교계에 감춰진 과거가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도 선명해지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⁴⁾

이와 같은 빅토리아의 입장과 그에 의해 정리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저서는 실로 일본의 불교를 재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실제 그 영향력이 컸던 것은 영어로 된 원서에 대한 일본어 번역판이 2001년에 나오면서 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번역판으로 인해 일본불교의 主流敎團의 입장에서 보면 감추고 싶은 과거의 행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간 전후 불교계의 전쟁책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종파들로 하여금 전쟁책임을 반성케

4) 『선과 전쟁』 p.282.

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번역판의 출간은 오늘날 최고수준의 학문적 성과를 보여주는 일본 불교학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불교의 현실적 측면을 되돌아보는 계기도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의 한 예로서 일본어번역판에 대한 치밀한 서평을 쓴 이시이 고세이(石井公成) 박사는 이후 전후 불교계전쟁책임론을 최초로 언급한 이치카와에 대한 논문을 비롯해 전쟁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제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⁵⁾ 아울러 그간 불교학계에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던 전쟁과 관련된 시대적이고 현실적인 일본 불교사회의 양상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일본불교계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은 빅토리아의 저서를 일본어로 번역한 역자 에이미 츠지모토의 後記 속에서는 신랄할 정도로 분명하게 기술되고 있다. 츠지모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후 국가신도의 체계는 해소되고, 일부의 군지도자들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가령 죽음으로써 속죄하더라도 삼백만 이상 국민의 목숨을 빼앗은 책임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일체의 불교관계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 추궁되지 않은 것이다. 반복하지만 그들은 신격화된 천황제와 군국주의를 지지·지원하고 국민의 고통과 죽음을 앞에 둔 청년들의 분노와 비애조차 돌보지

5) 빅토리아의 책에 대한 서평은 다음과 같다. 石井公成, 「フライアン・ヴィクトリア 著、『禪と戦争 禪仏教は戦争に協力したか』」 『駒澤短期大學佛教論集』第7號, (2001, 10) 본 서평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빅토리아 책의 일본어번역판에 대한 서평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 이후 저술된 이시이 선생의 이치카와에 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宗教者の戦争責任-市川白弦その人の検証を通して」 『岩波講座 宗教8 暴力 破壊 秩序』, (東京: 岩波書店, 2004, 9)

는 커녕 무시하고 전장으로 내보냈다. 종교감각을 마비시켜 모두가 국가를 위해 나아가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여 모든 위선을 쓴채 강인하게 국민을 국가의 광기속에 빠지게 한 것은 아닌가. 아시아인을 무시하는 일도 허락한 것은 아닌가.⁶⁾

츠지모토가 빅토리아의 저서를 일본어로 번역하게 된 계기가 엿보이는 내용으로, 실제 군국주의의 일본 사회에 불교의 교단이나 지도자들이 적극 가담·협력한 것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기도 한다. 츠지모토는 더욱 강한 어조로 그러한 불교가의 책임을 묻는다.

이러한 국민의 동원에 대하여 ‘불법의 길’이라 외치면서 국민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현혹시켜 전지로 가게 한 승려들의 행위는 성직자의 입장에 있는 자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일이 아닌가. 또 거기에 스스로 나서서 곤경의 위치에 선 불교지도자가 한사람이라도 등장했던 적이 있었는가. 그들은 분명히도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폐전이 되자 ‘손바닥을 뒤집듯이’ 불법을 내세우고 평화론을 내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은 없었던 것일까. 그들 가슴속에 숨은 천한 마음가짐은 허용하기 어려운 바이다.⁷⁾

이러한 츠지모토의 비판은 근대이후 군국주의와 결부된 불교계의 모습과 전후 불교계가 보여준 양태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으로, 불교계

6) 『선과 전쟁』 p.285.

7) 『선과 전쟁』 p.286.

사회윤리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판의 대상으로 일본불교계의 모습 특히 전쟁과 관련된 일본 불교계의 모습은 그간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는 그다지 알 수 있는 바가 아니었지만, 빅토리아의 저서를 통해 외국에 알려짐은 물론 일본어번역판을 통해 일본 내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것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불교가 현실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되어야 하는가하는 사회윤리의 문제를 보다 深度있게 논하며 아울러 불교와 국가 간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생겨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일본 불교계의 보다 활발하고 유익한 논의를 기대하면서, 여기에서는 빅토리아가 언급하는 근대일본 군국주의하에서 불교가들의 입장과 견해를 일본어판에 의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皇道佛敎의 展開

에이미 츠지모토에 의해 번역된 일본어판 『선과 전쟁』은 전체적인 내용상 영어 원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간의 부분에 있어 역자 자신이 추가한 부분이 있어 원서내용 그대로는 아니다. 일본어 번역판의 전체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序-『선과 전쟁』을 추천함

프롤로그

제1장 廢佛毀釋운동

제2장 초기에 보이는 불교측의 사회적 자각

제3장 內山愚童 - 혁신적 曹洞禪僧

제4장 기성불교교단에 의한 혁신적 사회활동의 거절

제5장 군부정책에 흡수된 불교

제6장 군국주의에 대한 불교측의 반항

제7장 선, 그 암살자들

제8장 황도불교의 탄생

제9장 皇國禪, 그리고 軍人禪의 등장

제10장 전시에 협력한 선의 지도자들

제11장 전후에 있어 황도불교, 황국선, 혹은 군인선에 대한 반응

제12장 전후 일본의 기업선의 등장

에필로그

역자후기

일본어문헌

영어문헌

주 일람

본 일본어 번역판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했듯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이시이 고세이 박사에 의해 실로 날카롭고 신랄한 서평이 나왔다. 그곳에서 이시이 박사는 일본의 불교가에 대한 원저자에 인용과 기술이 주변의 상황과 역사적 관계를 너무 무시하고 正反, 黑白의 二分法的 기술에 의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⁸⁾ 그리고 역서에 대해서도 영어 원문의 내용과 관계없이 역자가 임의로 넣은 제7장의 부분 등에 대한 지적과 잘못된 번역 등이 많아 원서가 지니는 본래의 내용을 제대로

8) 앞의 주5) 石井 서평 p.196.

로 전달할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⁹⁾ 하지만 이시이 박사도 수긍하듯 일본불교의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이 일본인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된 본서의 과급력은 실로 큰 것은 물론 일본불교의 입장에서는 돌아보기 싫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¹⁰⁾

본서의 목차에서도 보듯 원저자 빅토리아는 일본불교와 전쟁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곧 일방적인 전쟁협력이나 책임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제3장의 우치야마 구도(内山愚童, 제3장)와 같은 군국주의로 전개되는 사회분위기에 반항하여 불교사회주의에 가담한 인물에 대한 조명과 제6장과 같이 당시 사회에 있어 불교계의 체계적인 반항을 시도한 新興佛敎靑年同盟 등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군국주의로의 전개에 대하여 당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던 명망있는 불교가나 기존의 불교교단은 거의 대다수 순종적으로 따르거나 오히려 당시 사회의 중심에 있던 천황을 적극 옹호하는 불교체제 즉 皇道佛敎를 선양하여 군국주의 전개를 저지하기 보다는 방조하는 입장에서 있었다. 그러한 황도불교의 전개에 대해 제8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 불교가와 교단의 입장을 기술하고 있다.

제8장 <황도불교의 탄생>에서는 먼저 당시 불교계의 중요한 인사들이 저자로서 등장하는 『護國佛敎』에 나타난 불교가의 견해를 기술하고 있다.¹¹⁾ 먼저 저자중의 한사람인 法相宗 法隆寺 주지인 사에키 조인

9) 앞의 논문, p.197.

10) 앞의 논문, p.203.

11) 『護國佛敎』는 1938년 1월 大倉精神研究所에서 발행(『선과 전쟁』 p.136).

(佐伯定胤, 1867-1952)의 견해로서, 그는 천황에 대해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되서는 안된다. … 천황의 조칙은 신성하여 침범해서는 안된다…”¹²⁾라고 말하며, 일체의 일본국민은 천황의 자식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직 자신의 배로 아파하며 낳은 자만이 자식이 아니고, 완전히 타인이라고 생각한 자도 나의 아들이며, 나의 자식이 아닌 자는 하나도 없다. 이것이 如來의 大慈悲이다. 그 여래의 대자, 대비라는 그 신앙, 그 이상을 정치적으로 펼쳐보인다면, 일본의 영토에 사는 모든 국민은 한사람이라도 천황의 자식이 아닌 자는 없다는 것이 된다.¹³⁾

이렇게 일체 모든 국민이 천황의 자식이라는 것을 불교적 근거로서 여래의 대자비에 비유해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또 『호국불교』에서는 前 大正大學 學長인 후쿠다 교에이(福田堯穎, 1867-1954)는 일찍부터 일본의 불교는 단순히 인도나 중국의 불교와 동일시해서는 안되며 특히 천태종이 “깊이 일본의 국민성에 입각하여… 진화국가의 종교로서 피졌다”라고 설하며,¹⁴⁾ 그것이 역대 천황의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호국불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논문의 저자가 당시 淨土宗 승려인 시이오 벤쿄(椎尾弁匡, 1876-1971)로 그는 후에 대정대학 학장이 된다. 그는 <황도불교>라는 장문의 논문을 기고 하고 있는데 그 논문의 제3장<탁월한 일본의 국정>에서 그는 인도

12) 『선과 전쟁』 p.136(『護國佛敎』 p.158, 「日本佛敎と國體觀念」)

13) 『선과 전쟁』 p.137(『護國佛敎』 p.160, 「日本佛敎と國體觀念」)

14) 『선과 전쟁』 p.138(『護國佛敎』 p.208-209, 「日本天台と鎮護國家」)

에서는 불교가 멸망하고 중국에서는 불교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하였고 오직 일본에서만 불교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고 말한 뒤 “이것은 일본의 바람직한 國風民俗으로 나라 중에 퍼져 있지만, 실은 그 중심인 천황, 황실의 힘에 의해 인도되고 자라나 온 것이다”¹⁵⁾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제4장 <황도불교의 제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불교가 일본불교로서 발달하였더라도 역시 그와같이 완전히 황실의 덕 특히 역대 천황이 몸으로써 믿고, 몸으로써 인도해 주신 그것이 완전히 그와같이 된 것으로 일본불교의 큰 특색은 옛부터 거기에 고승이나 독실한 신자들의 힘에 의해 자라난 것은 틀림없지만, 그 고승이나 독실한 신자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행하여 왔더라도 어느 때나 大詔에 의해, 황실의 모범에 의해 점점 그와같이 된 것으로 이 황실, 천황을 중심으로 자라온 불교라는 점이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이 하나의 황도불교라고도 칭할 수 있는 것이다.¹⁶⁾

곧 일본불교의 오늘날과 같은 발전은 황실에 의한 믿음과 황실의 詔勅등에 의한 바가 컸던 것으로 이러한 특징을 황도불교라고 이름하였던 것이다. 시이오의 글에서 보이는 불교적 특색은 황도불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천황이 내리는 조칙이야말로 국가의 근본으로 그는 “詔는 즉 國體이며, 詔는 곧 목숨이다. 조칙을 받아 반드시 근

15) 『선과 전쟁』 p.139(『護國佛教』 p.50, 「皇道佛教」)

16) 『선과 전쟁』 p.139(『護國佛教』 pp.50-51, 「皇道佛教」)

신하며, 군주는 곧 天, 신민은 곧 땅이다¹⁷⁾라고 말한 뒤, 明治天皇 이후 조칙의 힘이 약화되었지만 昭和時代인 지금이라도 천황의 조칙에 충실히 따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삼보를 공경하는 것조차 천황의 조칙을 받아 근신하며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시이오 벤쿄에 의해 거의 완성적으로 성립된 황도불교의 논리는 이후 日蓮宗이나 淨土眞宗 등 기성 교단에게도 과급되어 황도불교가 당시 불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황도불교를 만드는 중심 단체로서 일련종에서는 ‘皇道佛教行道會’가 결성되고, 정토진종에서는 ‘皇道眞宗’이라는 명칭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¹⁸⁾ 이러한 진종의 입장에 대해 근대 정토진종의 학자 다이토 사토시(大東仁)는 “적어도 15년 전쟁중은 그 핵심도 황도진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明治 大正을 거쳐 15년 전쟁 당시에 완성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¹⁹⁾”라고 말하고 있다. 곧 천황을 받드는 진종의 불교로서 황도진종은 이미 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까지 15년 전쟁 기간 중 완성되어 실시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선과 전쟁』의 제8장은 이와 같이 황도불교의 정의와 그것에 대한 실천을 설명한 뒤 구체적으로 당시 중요한 논의의 핵심으로서 불교와 전쟁에 대한 관계를 고찰한다. 곧 당시 불교계의 전쟁인식을 보여주는 주요한 저술인 『불교의 전쟁관』에 의거해 당시 불교가의 전쟁에 대한 입장을 기술하고 있다.²⁰⁾ 이 책에서는 먼저 전쟁에 대한 중국불교도와

17) 『선과 전쟁』 p.140(『護國佛教』 pp.130-131, 「皇道佛教」)

18) 『선과 전쟁』 pp.141-142.

19) 『선과 전쟁』 pp.142-143(大東仁, 『お寺の鐘は鳴らなかつた』 p.110).

20) 『佛敎の戦争観』은 1937년 고마자와 대학의 林屋友次郎(1886-1953)과 島影盟(1902-?)에 의해 발간되었다.(『선과 전쟁』 p.143.)

일본불교도간의 입장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를 거론하고 논의한 뒤 불교적 입장의 전쟁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한 정의로서 이 책은 “불교의 전쟁은 어디까지나 수단으로서의 전쟁이다. 목적은 중생의 구제, 중생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데 있다”²¹⁾라고 말한 뒤, 중생을 구제하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불교적 성왕인 金輪聖王을 천황에 비유하고 “천황이 俗界의 여래인 것을 의미한다”²²⁾고 말하고 있다. 곧 지혜가 낮은 국민들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또 상대국의 국민들에게 不正이나 不法이 있을 때 금륜성왕이 折伏의 무기를 들 듯 천황 또한 국민을 보호하고 자비에 따른 전쟁을 수행한다고 말하고 있다.²³⁾ 그렇지만 이렇게 불교에서 전쟁을 인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는 ‘국가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²⁴⁾ 곧 국가를 살리는 전쟁에 대해 『불교의 전쟁관』에 의거해 빅토리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쟁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 불가결할 때 “어쩔 수 없이 최선의 전쟁을 해야 할 것(『불교의 전쟁관』 p.47)”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국민은 “국가의 성원으로서 국가와 일심동체이며, 국가를 떠나 국민이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불교의 전쟁관』 p.48)”라고 한다. 확실히 전쟁에 의해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있더라도 저자들이 말하는 한결코 한사람 한사람에게 좋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교에 의해 시인된 전쟁이란 국가를 완성시켜야 할 목적이 있을 뿐만아니라개인

21) 『선과 전쟁』 p.145(『佛敎の戰爭觀』 p.23)

22) 『선과 전쟁』 p.145(『佛敎の戰爭觀』 p.27)

23) 『선과 전쟁』 p.146(『佛敎の戰爭觀』 p.28)

24) 『선과 전쟁』 p.146(『佛敎の戰爭觀』 p.45)

을 완성시켜야할 목적도 있는 것이다. 사실 “개인 개인이 완성되어 있으면 전쟁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불교의 전쟁관』 p.72)”라고 결론짓고 있다.²⁵⁾

이러한 기술에서도 알 수 있듯 전쟁의 원인을 ‘지혜가 낮은 국민’에게 돌리며 또한 그러한 국민이 있는 국가에 돌려 일본이 중국이나 타국을 침범하는 이유로 만들고 있다. 곧 타국의 국민과 국가는 일본보다 劣等하여 그들에게 正法の 실현을 위해 전쟁을 한다는 것이 그 논리로 이것은 전쟁이라는 폭거를 불교적으로 포장, 일본의 불교계가 전쟁에 적극 협력해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시킨 결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불교계의 전쟁에 대한 협력을 이끄는 논리는 『불교의 전쟁관』의 끝 부분에 나와 있는 다음의 내용으로 그 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세계인류의 지혜가 높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원인이 없기 때문에 전쟁도 없다. 인류가 전쟁을 그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우리도 적도 살리는 자비의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다. 자비의 전쟁에 의해 교전국 상호 모두 향상하여 전쟁이 전쟁을 구축해 가는 것이다.²⁶⁾

이러한 전쟁에 대한 논리에 의거해 불교계는 실제 전쟁에 대한 지원 내지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한 사례를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5) 『선과 전쟁』 pp.146-147.

26) 『선과 전쟁』 pp.148-149(『佛敎の戰爭觀』 p.105)

3. 佛敎家の 전쟁응호

빅토리아의 『선과 전쟁』 일본어 번역판의 제10장은 그 제목이 〈戰時에 협력한 선의 지도자들〉에서도 나타나듯이 전쟁에 대한 佛敎家の 발언 내지 기성교단의 입장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먼저 이 장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하타 예쇼(秦 慧照, 1866-1944) : 당시 曹洞宗 本山 永平寺 貫首
- * 오오모리 쯤카이(大森禪戒, 1871-1947) : 당시 조동종 管長
- * 야마다 레이린(山田靈林, 1889-1979) : 당시 조동종 老師, 戰後에 駒澤大學 학장, 영평사 관수가 됨
- * 구레마야시 고도(樽林皓堂, 1893-1988) : 道元禪 연구의 大家 戰後 駒澤大學 학장
- * 히타네 조잔(日種讓山, 1873-1984) : 花園大學 前身 臨濟學院의 學僧
- * 후쿠마 호슈(福場保洲, 1895-1943) : 임제학원의 학승
- * 하라다 소가쿠(原田祖岳, 1870-1961) : 조동종, 그가 속한 파는 후에 미국 선불교의 주류가 됨
- * 마스나가 레이호(増永靈鳳, 1902-1981) : 조동종 학승

빅토리아가 선종인 조동종의 승려였던 관계로 그가 모은 자료는 대다수 선종과 관련된 자료가 많은 것이 눈에 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거론된 사람들은 선종의 관계자로서는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었던 사람들로써 이들에 의한 전쟁의 입장은 그들이 속한 교단의 입장을 상당수 반영하고 있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앞에서 거론한 사람들

가운데 먼저 하타는 1942년 12월 조동종의 본산 영평사의 기관지인 <傘松>에서 12월 8일 부처님의 成道節 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 석가모니 세존은 一見明星 보리수 하에서 大悟成道하셨지만 우리 동아는 실로 작년 12월 8일 미영격멸의 大詔渙發에 의해 신동아 대동아로서 新發足, 소위 성도를 하게된 것이다. 우리들 일본 제국신민으로서 이 영광스런 시대에 살아가는 자 아니 대동아의 오늘을 내일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태어난 우리들 서로는 이 대동아 成道の 새벽으로 하여금 실로 有終의 美를 거두도록 해야할 것이며, 절대의 각오를 굳히고, 절대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지금 대동아전쟁 발효 1주년의 기념일을 맞이함에 있어 前途가 용이하지 않음을 생각함과 동시에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필승의 각오를 굳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²⁷⁾

이렇게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당시 사회적인 지위에 있던 불교가에게 있어서는 당연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오오모리도 道元선사의 유명한 말인 “불도를 배우는 것 자기를 배우는 것이며, 자기를 배우는 것은 자기를 잇는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 “자기를 잇는 불도의 근원에 입각하는 것이 臣道實踐의 眞髓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더라도 이 진수를 체현하는 것이야 말로 비로소 佛教報國의 行願이 되는 것이다”²⁸⁾ 라고 말하고 있다. 곧 자기를 잇고 신민된 자

27) 『선과 전쟁』 pp.201-202(『傘松』No.181, 1942년, 12월호, p.407)

28) 『선과 전쟁』 p.202(『曹洞宗報』No.39, 1941년, 1월1일 p.1)

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다는 그러한 의무를 다하고 죽은 일본 군인들의 명령에 대해 “명령의 정체는 忠勇義烈한 善業力 그 자체이다. … 충용의열한 장병이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절명하는 이 장병의 명령이 일본 이 국토에 태어나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당연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²⁹⁾고 전쟁으로 죽은 일본 신민의 명령을 위로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명령들이 싸운 전쟁에 대하여 불교의 자비의 이름으로 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것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구레마야시는 1937년 일중전쟁에 대해 중국에서의 전쟁은 ‘자비의 행’이라고 말한 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로 황군이 나아가는 곳에는 인애만이 있고, 지나병과 같은 잔학무도한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실로 실로 불교가 오랜 기간에 걸쳐 육성해온 위대한 성과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불교정신으로 단련된 황군의 장교사병에게는 잔학성이란 없는 것이다.³⁰⁾

이렇게 말한 뒤 구레마야시는 “불교의 신앙없이 그 국가의 흥륭, 인류의 행복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조이다”³¹⁾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 일본군이 중국에서 거행한 잔학한 행위의 기록은 실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이 알려지지만, 불교가의 입장에서 전쟁에 임하는 장교나 사병에 대한 용기를 고취시키는 불교야말로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실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히타네 역

29) 『선과 전쟁』 p.203(『禪學夜話』 pp.53-54)

30) 『선과 전쟁』 pp.204-205(『事變と佛敎』『叢松』No.121, 1937년10월호 p.377)

31) 『선과 전쟁』 pp.204-205(『事變と佛敎』『叢松』No.121, 1937년10월호 p.378)

시 만주사변에 즈음하여 일본의 전쟁은 모두 自衛를 위한 것이라고 하며 그 전쟁을 ‘보살의 大行的 聖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³²⁾ 이것도 역시 보살의 실천행을 전쟁을 옹호하는 이론으로 표현하고 있다. 임제학원에서 히타네의 동료이었던 후쿠바도 중국과의 전쟁이 본격화되던 시점에서 선종의 역사가 중국을 통해 발전해 일본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 일본의 선은 ‘興禪卽護國’의 사상으로 발전해 선 본래의 면목이 일본에서 꽃피었다고 말하고 있다.³³⁾ 그리고 이러한 선의 본래 입장을 충과 孝의 관점에서 논해 중국은 충을 버리고 효를 택한데 비해 일본에서는 충이 우선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단약 현실의 문제로서 충과 효가 모순하여 양자택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감연히 충을 택하는 것이 일본의 충효의 도이다... 일본에 있어서 이러한 충도덕의 우월성·절대성은 단지 효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타당하다.³⁴⁾

소위 국가를 위해 도덕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며, 그것이 선종으로서 일본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전쟁에 임하여 선종이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앞서 거론한 인물가운데 하라다는 전후 일본의 불교를 미국에 알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32) 『선과 전쟁』 p.205(「今次の事變と菩薩の願行」『禪宗』No.510, 1937년10월호 p.19)

33) 『선과 전쟁』 p.206(「支那的과 日本的」『禪學研究』No.32, 1939년 11월5일 p.102)

34) 『선과 전쟁』 pp.206-207(「支那的と 日本的」『禪學研究』No.32, 1939년 11월5일 pp99-100)

간주되며 상당수의 미국인 제자를 두기도 하였다. 그가 전후 미국등지에서 포교를 통해 상당한 신망을 얻었지만, 그도 또한 전쟁기에 있어서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였고 일찍이 ‘戰爭禪’이란 말을 사용해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³⁵⁾ 그는 제1차대전에 즈음해 “그와 같이 인간의 눈으로 본 우주는 식물계도 인간계도 그 정신계도 남김없이 악전고투의 전쟁장이 아닌 것이 있는가”라고 말한 뒤 “남김없이 전쟁선의 적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 조금도 전쟁을 잇는 일이 없어야 한다”³⁶⁾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전쟁선’이라 하여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불교적으로 표현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하지만, 후에 그는 大乘禪이란 말을 사용하여 일본의 정신을 더럽히는 사회전반의 잘못된 것들을 정화하는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내외정화운동으로서 칼(무기)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대승선에서의 殺人劍 즉 活人劍을 말한다. 그런 까닭에 일부의 사람들이 말하는 전쟁죄악론 등은 바보같은 잠꼬대이다.³⁷⁾

하라다는 전쟁에 돌입하는 일본의 사회에서 전쟁과 선의 일치를 강조하는 戰禪一切의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주장하며, 전투에 임해서는 강한 삼매의 경지를 가져야 한다는 ‘戰鬪의 王三昧’라는 경계를 강조하

35) 『선과 전쟁』 p.208(1915년 출간된 하라다의 『參禪の階梯』 제11장 제목이 ‘전쟁선’이다)

36) 『선과 전쟁』 p.209(Maezumi and Glassman, *The Hazy Moon of Enlightenment*, pp116-117)

37) 『선과 전쟁』 p.209[『日本精神と大乘禪』의 요약문중에서(『中央佛敎』1934년 3월)]

고 있다.³⁸⁾ 그는 전쟁이 불리해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싸움에 임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조동종의 학승으로 전후 선관계의 책을 영어로 출판해 해외에서 많이 알려졌던 마스나가도 『中外日報』에 기고한 글에서 가미가제의 자살행위를 불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로 비유하여 불교를 군국주의의 이상적인 면으로 결부시켜, 불교의 정신을 전쟁옹호의 이론으로 합치시키고 있다.³⁹⁾

4. 기성교단의 전쟁협력

앞서 『선과 전쟁』에 수록된 불교가의 전쟁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았지만, 이들 불교가는 대다수 자신들이 속한 교단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견해는 교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실제 교단은 일찍이 청일전쟁 당시부터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곧 청일전쟁 당시부터 불교교단은 불교의 계율에 근거하여 전쟁을 정당화하는 해석을 시도하였고, 또한 교단은 戰地의 中軍 위문, 戰病者·出征家の 가족 위문, 포로 撫恤의 援護活動, 海外開教 등을 행하였고,⁴⁰⁾ 이러한 행위들은 이후 전쟁시기에도 계속하여 진행되었다. 러일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당시 정부측으로부터 종교교단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고, 불교계에서도 특히 眞宗 本願寺派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졌다. 진종 본원사과에서는 ‘臨時部’를 개설하여 군부

38) 『선과 전쟁』 p.210(市川白弦, 「日本ファシズム下の宗教」p.252)

39) 『선과 전쟁』 p.211(市川白弦, 「日本ファシズム下の宗教」p.295)

40) 吉田久一, 『近現代佛敎の歴史』, (東京: 筑摩書房, 1998) p.103

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업무의 내용으로서 ①군자헌납 또는 恤兵 金품 기증장려 ②군사공채·국고공채 채무응모 ③출사개선의 送迎慰問 ④군인 가족의 위문 및 구호 ⑤부상군인들의 위문 ⑥전사자 葬儀 및 추도 ⑦전사자 유족의 위문 및 구호를 그 내용으로 하여 적극 정부의 방침에 기여하였다.⁴¹⁾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당시 불교계는 폐불훼석과 같은 불교탄압의 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 당시 국교적 역할을 한 神道 이상의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할은 일본사회가 전쟁에 더욱 빠져들수록 더욱 깊게 관여하게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빅토리아도 불교계 지도자가 전쟁협력의 발언을 하게된 것을 계기로 그들이 속한 교단들도 전쟁에 적극 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뒤 그 협력의 기본이 된 것은 국내적으로는 유족에 대한 원조와 국외적으로는 점령지에 대한 포교활동을 들고 있다.⁴²⁾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중에서도 전쟁승리를 위한 특별법요가 다수 거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한 특별법요 중에 1944년 조동종의 대본산 總持寺에서 거행된 “般若心經一千萬卷淨寫必勝祈願大法要”와 관련된 기사에서도 “대본산 영평사에서 그 기원 대법요가 거행되었으며, 돌아보건데 玉體康寧, 皇土安穩, 및 敵國降伏을 기도한 바는 이미 보도한바와 같지만...⁴³⁾”이라 하여 법요의 근본이 천황의 안녕과 적국에 대한 승리에 대한 기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제종에서도 미영의 격멸을 달성하기 위한 법요가 거행되었고, 이러한 법요와

41) 앞의 책, p.143

42) 『선과 전쟁』 p.212.

43) 『선과 전쟁』 p.214(『曹洞宗報』1944년11월-12월호, p.1)

관련하여 기고된 글 가운데는 慈悲의 화신인 관음보살을 빗대어 ‘將軍觀音’이란 말을 사용해 군의 지도자를 이와 같이 부르고 있다.⁴⁴⁾ 빅토리아는 당시 관음보살로 간주된 장교가운데 한사람인 육군대장 마츠이 세키네(松井石根, 1878-1948)가 興亞觀音의 건립과 관련된 개안식에서 “이 공덕으로써 널리 원천 평등하게 회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관음력을 염해 동아의 대광명을 받들기를 기원한다”⁴⁵⁾는 기원문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군에서 거행된 대부분의 법요식의 내용이 불교의 교리로서 전쟁의 이론을 정당화하는 일이 주된 과제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불교교단은 일본 사회가 전쟁으로 더욱 치닫는 가운데서도 정부와 군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하였고, 그러한 협력으로 대표적인 것이 자금을 건어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사 헌납한 것을 들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조동종에서는 1941년 육군과 해군에 비행기를 사 헌납하였고, 임제종에서도 해군에 전투기를 헌납하였다.⁴⁶⁾ 이러한 전쟁물자의 공급에 적극 협력한것 외에 각 교단은 전쟁에 임하는 국민들의 지도 훈련에도 적극 가담하여 국가의 전력증강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지도 훈련만이 아니라 태평양전쟁의 말기에 이르러 승려자신들도 군수물자의 생산에 직접 가담할 것을 초종파적인 大日本佛教會의 이름으로 발표문이 나오고 있다.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44) 『선과 전쟁』 p.215(今井福山, 「吾宗古代の軍事關係の祈禱と回向文」 『禪宗』No.513, 1938년1월호, pp.21-22)

45) 『선과 전쟁』 p.215(『興亞觀音について』興亞觀音奉贊會出版, p.2)

46) 『선과 전쟁』 p.216

‘전력의 증강은 정신력으로부터’ 라는 의미로부터 각종파가 가지는 우수한 승려 약 1만인이 스스로 지원하여 중요산업공장에 뛰어들어가 직접 생산에 종사함과 동시에 산업전사의 정신적 훈련지도에 임하는 점에 있다.⁴⁷⁾

이렇듯 불교교단은 전쟁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군국주의 전쟁에 대한 협력은 물론 전쟁에 임하는 국민을 전쟁협력의 장으로 이끄는 실제적인 역할도 담당하였다.

III. 이치카와 하쿠젠의 불교계 책임론

1. 불교계 전쟁책임론 제기

일본불교계는 태평양전쟁의 終戰에 이르기까지 사회와 국민을 전쟁으로 독려하는 작업을 늦추지 않았다. 사회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가운데 불교교단은 전쟁에 임하는 일본 군부가 마지막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전쟁에서의 패전은 이러한 일본불교계의 전쟁협력의 노력에 비례하여 전쟁에 대한 책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불가사의한 것은 이러한 전쟁에 대한 책임의식의 표명이 교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패전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라는 것이다. 빅토리아도 밝히고 있듯

47) 『선과 전쟁』 p.218(『曹洞宗報』No.113, 1944년 2월1일 p.1)

이 일본의 불교교단으로서 전쟁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반성을 표명한 것은 진종 東本願寺가 1987년 4월 〈全戰沒者追弔法會에 임해〉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낸 것이 처음이었다.⁴⁸⁾ 물론 이에 비해 일본의 기독교가 20년전(1967)에 반성문을 낸 것과는 시간적인 거리를 갖는 것이지만⁴⁹⁾, 1945년 패전이후 이렇게 전쟁에 대한 책임의 언급에 4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단적 차원의 반성도 그간 개인적 입장에서 전쟁과 관련한 꾸준한 연구와 반성의 촉구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다. 패전이후 일본사회에서도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불교계의 전쟁협력등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으며, 빅토리아도 상세히 논하고 있듯 그러한 비판에 앞장선 대표적인 인물이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1870-1966)이다. 빅토리아는 1947년 간행된 스즈키의 『일본의靈性化』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의 전쟁비판을 상세히 고찰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이세츠는 전쟁 그자체를 바보같은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태평양전쟁에 한정하여 “아마도 부득이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의 책 가운데 어디에도 일본의 대만, 조선, 중국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아시아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해서는 지지자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⁵⁰⁾

48) 『선과 전쟁』 p.227(「全戰沒者追弔法會にあたって」)

49) 『선과 전쟁』 p.226.

50) 『선과 전쟁』 pp.224-225.

이렇듯 당시 일본 최고의 지성인 다이세츠에게서도 전쟁 전반에 대한 반성과 윤리적인 책임의식 등은 희박하였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특별히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빅토리아가 지적하고 있듯 실제 일본 사회에서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비판을 논할 경우 일본의 식민지이었던 대만이나 조선은 언제나 論外로 취급되어 식민지 국가로서의 피해나 억압은 거의 경시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식민지 국가의 아픔과 피해 등을 포함해 전쟁 전반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을 총체적·적극적으로 거론해 불교계의 전쟁책임을 본격적으로 촉구한 사람이 빅토리아에게도 크게 영향을 준 이치카와 하쿠겐(市川白弦, 1902-1986)이다.

이치카와는 전후 일본사회에서 불교계의 전쟁책임에 대해 연구하고 그 반성을 촉구한 최초의 인물로 간주된다.⁵¹⁾ 이것은 그가 1970년

51) 근대일본의 ‘불교와 평화’ 혹은 ‘불교와 전쟁’에 대해 연구된 서적을 연대순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大谷栄一『近代佛教という視座-戦争・アジア・社會主義』(東京: ぺりかん社, 2012,3) pp.148-149에 의거].

市川白弦『佛教者の戦争責任』(春秋社, 1970)/ 同『日本ファシズム下の宗教』(エヌエス出版會, 1975) / 中濃教篤編『講座 日本近代と佛教6 戦時下の佛教』(國書刊行會, 1977) / 菱木政晴『浄土真宗の戦争責任』(岩波書店, 1993) / 大東仁, 『お寺の鐘は鳴らなかつた-佛教の戦争責任を問う』(教育史料出版會, 1994) / 大西修『戦時教學と浄土真宗-ファシズム下の佛教思想』(社會評論社, 1995) / James W. Heisig & John C. Maraldo eds., *Rude Awakenings: Zen, the Kyoto School, & the Question of Nationalism*, University of Hawai's Press, 1995 / Brian Victoria, *Zen at War*, Weatherhill, 1997(エイミー・ルイズ・ツジモト 訳, 『禪と戦争-禪仏教は戦争に協力したか』, 光人社, 2001) / 栄沢幸二『近代日本の佛教家と戦争-共生の倫理とその矛盾』(専修大學出版局, 2002) / Brian Victoria, *Zen War Stories*, (Routledge Curzon, 2003) / 天理大學 おやさと研究所編『戦争と宗教』(天理大學おやさと研究所, 2006) / 坂本慎一『ラジオの戦争責任』(PHP신서, 2008) / 大東仁『戦争は罪惡である-反戦僧侶 竹中彰元の叛骨』(風媒社, 2008) / Christopher Ives, *Imperial-way Zen: Ichikawa Hakugen's Critique and Lingering Questions for Buddhist Ethics*,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9) / 小川原正道『近代日本の戦争と宗教』(講談社, 2010)

『불교자의 전쟁책임』이라는 책을 간행한 것이 그러한 위상을 가지게 한 것이지만, 실제 책의 내용에 해당하는 논문들은 1959년부터 집필된 것들이다. 『불교도의 전쟁책임』에 수록된 글의 제목과 그것이 실린 잡지 및 발행연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부]

佛教徒の 戰爭責任(『現代に生きる宗教者の証言』, 1968,8)

挫折과 轉向(『大乘禪』, 1960-61)

[제2부]

禪에 있어서 自由(『思想』, 1964, 1,10)

불교에 있어서 平和(「いかなる平和を求めるか」 『展望』1969, 11)

현대불교의 自己回復(『思想の科學』1961, 1)

일본에 있어 佛敎社會主義의 문제<The Problem of Buddhist Socialism in Japan>(“Japanese Religions” Vol.6 August 1970. No.3 A Magazine Issued by the NCC Center for the Study of Japanese Religions)

[제3부]

倉田百三論(『大法輪』, 1963, 7-12)

西田幾多郎論(「絶對無のつまづき—西田幾多郎の場合」 『思想』1959, 1)

이치카와는 1902년 임제종 妙心寺派 절의 아들로 태어난 까닭에 그도 일본사회가 전쟁으로 본격 접어든 1930-40년대에는 이미 불교계에서 그 이름을 알리고 있었으며, 전후에도 또한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불교학계에서는 그의 이름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에 비해 최근 그에 대한 논문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실제 빅토리아

의 저서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이치카와는 빅토리아가 본격 전쟁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하였을 때 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장본인으로, 그의 글을 통해 불교가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협력하였다는 사실은 빅토리아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치카와의 전쟁책임에 대한 글은 당시 거의 개인적 내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가 속한 교단이나 사회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지만 빅토리아의 저서가 일본어로 출간된 이후 일본에서 그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아울러 불교와 전쟁, 폭력 등 사회윤리와 관련된 글 또한 본격적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생각된다.

이치카와는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불교자의 전쟁책임』의 첫 번째 수록 논문인 「불교도의 전쟁책임」에서 그는 먼저 “전쟁의 罪責은 본래 평화의 죄책이다”⁵²⁾라고 하여, 평화시에 평화와 자유에 대한 죄책감을 쌓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쟁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말한 뒤 그 평화와 자유에 대한 죄책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평화에 있어서 평화와 자유에의 죄책은 무엇보다도 먼저 ‘無知’의 죄책이다. ‘모르는게 부처(모르는게 약)’에 대한 죄책이다. 불교의 ‘정견’‘정사유’라는 말을 좀더 넓은 의미로 취한다면 ‘정견’‘정사유’가 없는 것에 대한 죄책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이 넓은 의미에서의 국민교육에 의해 어리석어지고, 불구가 되고, 또 광신자가 되었다는 죄책이다. 이 무지와 광신은 우리들의 태만과 타산과 臆病 즉 영리한 현실주의와 ‘되는 대로주의’로부터 오는 인식의 용기가 결여됨으로부터 확대되고 강화되

52) 『佛敎者の戰爭責任』 p.3.

었다. 예를 들면 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정보조작의 ‘자발적인’ 객체가 되는 것에 의해.⁵³⁾

이러한 평화시의 죄책감은 무지에 대한 죄책감 내지는 사회에 움직임에 대한 순응 등에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대처하지 못한데 대한 죄책감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와 같은 사회의 움직임이란 ‘東亞永遠 平和’와 같은 大義라든가 ‘皇祖皇宗의 神靈’에 의거한 天孫民族의 ‘聖戰’등을 내걸어 일본사회를 전쟁으로 이끈 것으로⁵⁴⁾, 그러한 움직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죄책감을 가리킨다. 따라서 일본인 자신들의 전쟁책임에 대한 반성은 “천황제에 대한 비판과 우리들 내부에 있는 천황제 에토스에 대한 자기비판이 결합된다면 그것은 불철저한 것이 될 것이다”⁵⁵⁾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일본민족의 황민화 정책이 식민지 국가로서 대만, 조선, 만주에서도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실제 일본내의 국민과는 다른 차별적 입장으로서 惡差別, 惡平等에 처해있었음에도 그것에 대한 비난이 없었음을 스스로 비판하고 있다.⁵⁶⁾ 그리고 이러한 자기반성의 태도와 함께 전쟁책임의 반성과 관련하여 일본대승불교의 발상법과 논리를 거론해 불교교학이 현실에 잘못 적용된 예를 다음절에서 보듯 다섯가지로 들고 있다. 그리고 대승불교가 개인의 安心立命에 관심을 두고 사회적 변혁 등에는 소홀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불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53) 『佛敎者の戰爭責任』 p.4.

54) 『佛敎者の戰爭責任』 p.5.

55) 앞과 동일

56) 『佛敎者の戰爭責任』 p.6.

생각해보면 오랜 기간 위축되고 자폐하여 자기기만에 빠져있던 대승불교는 역사의 올바른 동향에 통찰과 협력 속에서 스스로를 철저하게 변혁할 필요에 도달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일까.⁵⁷⁾

이러한 통찰과 협력에 의거해 철저히 자기변혁된 불교적 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의 안심입명의 장이 質的轉換되는데 진실한 전쟁 책임의 반성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것이 “단순히 전쟁책임으로서가 아니라 ‘성전’ 체험으로서의 반성이어야 한다”⁵⁸⁾는 질적전환된 반성이어야 하며 불교자로서는 자기와 법에 대한 전쟁책임 전후책임의 자세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 전쟁에 대한 일본불교계의 논리

이치카와는 전후 불교계의 전쟁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반성의 입장에서 다양한 자료를 모아 발표한 최초이자 대표적인 인물로 간주된다. 그가 불교계의 전쟁책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의 내용이 개개인에게도 해당한다는 분명한 입장이었다. 빅토리아도 이치카와가 지금껏 불교계의 어떠한 교단도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가운데 개인의 책임을 언급한 최초의 인물로 간주하고 그것의 근거로서 이치카와의 다음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57) 『佛敎者の戰爭責任』 p.8.

58) 앞과 동일

오늘날 일본의 불교자는 인류와 세계를 파국으로부터 구하는 예지와 철학을 갖는다고 하는 그러한 불교가 적어도 명치·대정·소화를 통하여 일본, 조선, 대만, 오키나와,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착취와 억압과 전쟁에 저항하기 위해 어떠한 교리와 전도를 진행시켜왔는가 하는 것, 먼저 이것의 전체를 반성하고 이것에 대한 한사람 한사람의 책임과 앞으로의 각오를 분명히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⁵⁹⁾

여기에서 이치카와는 불교의 교리가 전쟁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전쟁의 수행에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불교 교리와 전쟁논리의 관계에 대하여 이치카와는 앞서 <불교도의 전쟁책임>에서도 다섯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다. 그는 이것을 일본대승불교의 발상법과 논리라고 말해 전쟁책임의 반성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는 ‘事 가운데 理를 본다’는 논리에 대한 것으로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事 가운데 理를 본다’는 實相觀의 논리와 유기적 관련을 이루는 물비판적 자세가 만주사변, 일중전쟁 내지 건국기념일 등 기성사실에 약한 일본 민족의 에토스형성에 직접간접으로 기여한 것. 동일한 수동성, 몰주체성이 불교를 일본의 ‘집’ - 그것은 말하자면 천황제 국가의 세포핵으로서 신주단지를 가지고 있던 - 의 종교로서 기형화 한 것.⁶⁰⁾

59) 『선과 전쟁』 p.245(「日本ファシズム下の宗教」pp.22-23).

60) 『佛敎者の戰爭責任』 p.7.

곧 이치카와는 화엄사상의 理事法界의 관념이 일본의 국민성으로 하여금 천황제를 중심으로한 수동성, 몰개성화 하는데 기여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差別卽平等’의 논리가 체제옹호의 논리로서 기능해온 것을 지적하고 있다.⁶¹⁾ 세 번째는 ‘卽非’의 논리로,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비’의 논리, 즉 不自由卽自由, ‘隨處에 從이 되는’(聖戰에 滅私奉公) 것이 ‘수처에 主가되는’(大乘禪) 것이라고 말한 절대모순의 자기동일의 논리가 동일한 사회적, 정치적 역할을 한 것.⁶²⁾

‘즉비’의 논리는 『금강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논리로서 진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간주되지만, 그것이 현실의 삶이나 또 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개인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계기가 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安心’에 대한 요구가 ‘安全’에 대한 요구로 이해되어진 듯한 心境主義의 체험논리를 적극 추천해 설한 것⁶³⁾을 들고 있다. 다섯째는 앞서 네가지의 논리 내지 발상법이 “모두 ‘내면의 마음의 평화’를 ‘외부 세계의 평화’로부터 따로 떼어내 확보하는 안심입명의 心術論理로서 기능해 온 것⁶⁴⁾을 들고 있다. 곧 불교가 사회와 현실에 눈을 돌린채 개인 내면의 안심입명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섯가지로 불교교학이

61) 앞과 동일

62) 『佛敎者の戰爭責任』 p.8.

63) 앞과 동일

64) 앞과 동일

현실사회에 수동적, 물개성적 역할을 한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치카와는 일본에서 불교사회주의가 제대로 성립하지 않은 이유를 일본 불교의 역사적 성격에서 찾고 그것을 열두가지로 정리해 설명하고 있다. 이 열두가지의 성격은 빅토리아의 책에서도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다.⁶⁵⁾ 각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⁶⁾

- (1) 국가와 불교 : 불교의 호국적 성격은 대승경전에 유래할 정도로 역사적 연원이 오래된 것으로, 그것은 일본에서도 크게 환영을 받고 에도 [江戸]시대에는 국가종교로서 역할을 하여 葬儀와 祖上崇拜가 중심이 된 ‘집’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되었다. 그러한 성격은 明治期 국가초월주의의 기독교나 사회주의와 대립되는 분위기속에서 불교계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이들 사회운동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고 철저히 천황중심의 국가 이념에 충실히 따르는 입장을 취하였다.
- (2) 인간관과 사회관 : 불교에서 강조하는 업보와 인과의 개념은 현실의 차별을 물개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불평등조차 수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입장은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고자 하는 사회주의의 입장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갖게했다.
- (3) 勸善懲惡의 교설 : 삼세인과설이 극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진 권선징악적인 윤리개념이 근대 일본에 있어 국민도덕, 교육칙어, 치안유지법 등을 철저히 따르는 것을 사회적 선으로 받아들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65) 『선과 전쟁』 pp.253-257.

66) 『佛敎者の戰爭責任』 pp.150-154(「日本における佛敎社會主義の問題」)

- (4) 人權과 正義의 문제 : 연기설, 공개념, 무아설 등에 그 주요한 사상적 근거를 갖는 불교적 입장에서는 개인인격의 독립성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 그것은 또 근대적 인권이나 정의에 근거한 자연법에 상당하는 원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따라서 그러한 불교적 논리는 천황제에서 강조하는 ‘멸사봉공’ 속에서 천황과 국가를 공으로 하여 무아설이 천황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논리가 되었다는 것.
- (5) 規範原理의 부재 : 뚜렷한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적 입장이 확실한 규범을 세우지 않고 행위자의 심정을 중시하는 심정의 윤리를 세웠다는 것.
- (6) 恩의 사상 : 은혜의 개념은 불교의 중요한 윤리개념이지만, 구체적으로 강조되는 4은 즉 부모, 국왕, 중생, 천지 또는 삼보의 은혜 가운데 일본적인 가부장적 神政制에 의거해 부모와 국왕 즉 천황에 대한 은혜는 강조되었지만 중생의 은혜는 경시된 것.
- (7) 相依相關의 논리 : 사물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상의의 논리는 국가 유기체설과 관련성을 가져, 전체이면서 부분, 자본가이면서 노동자이고 노동자이며 자본가라는 대가족제적 협조주의 논리를 만들어 그것이 중도, 화합의 논리를 낳게 했다는 것.
- (8) 中道主義 : 불교의 중도사상이 근대일본불교의 중도주의 사회사상으로 구체화했다는 것. 따라서 그러한 중도주의 좌파나 우파의 중도가 아니라 오히려 타협주의이며 애매한 중간자에 의한 교화와 조정의 처세법이라고 하는 것.
- (9) 조상숭배의 전통 : 불교가 강조해온 조상숭배의 관습도덕은 대가족주의의 국민도덕과 합류하여 ‘八紘一字’의 聖戰 윤리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

- (10) ‘老’의 정신 : ‘寂滅’의 교의는 일본에서 ‘幽玄’ ‘한적함’ ‘은근’ 등의 문화를 만들었고, 어른이나 노인의 無欲, 和順, 寬容의 정신을 낳았고, 그것은 현실비판이나 현실부정의 의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
- (11) 정의보다도 安心 : 神이 없는 공의 종교로서 불교는 초월의 원리가 약했기 때문에 국가신도와 결합하는 것이나 神國의 정의를 지상에 실천하는 것도 약했으며, 오히려 개인내면의 안심을 강조해 사회개조의 의지를 확립하지도 못했다는 것.
- (12) ‘卽’의 논리 : 안심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자유는 심정적으로는 不自由卽自由이다 곧 불교적 卽의 논리에 의거한 것으로, 이것은 사회적 다양한 차별현실을 내면적인 용화, 풍류의 道로 만들어 불교사회주의를 위한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

이상의 열 두가지로서 일본불교의 성격을 규명하고, 불교가 현실사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치카와의 입장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의 전쟁 책임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려는 자세로서 일본 불교의 성격규정은 오늘날 불교교리의 현대적 이해와 적용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3. 이치카와 하쿠겐에 대한 평가

이치카와는 전후 불교계의 전쟁책임을 물은 대표적인 학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러한 이치카와의 노력은 대부분 그의 개인적인 원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그의 노력은 사후 네 권의 저작 집으로 엮어져 나왔지만, 생전의 연구는 실제 그가 속한 교단인 임제종 묘심사파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또 교단에서도 그의 연구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다. 그것은 다른 교단이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의 글을 발표하던 때에도 묘심사파는 전쟁에 대한 문제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것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빅토리아의 『선과 전쟁』 일본어판이 나온 이후 임제종에서는 妙心寺派와 天龍寺派가 근대 전쟁기에 행한 일체의 일에 대한 반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⁶⁷⁾ 이것도 실상은 빅토리아 책의 일본어판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 생각되지만, 실제 빅토리아의 책은 불교교단의 전쟁협력에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아울러 불교가와 전쟁에 대한 관계를 연구하는 계기 또한 만들었다. 그러한 예로서 대표적인 것이 이치카와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이것을 쓴 사람은 다름아닌 빅토리아 책의 일본어판에 대한 비판적인 서평을 쓴 이시이 고세이(石井公成) 박사이다.

이시이 박사는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일본의 불교학자로, 그는 빅토리아의 책에 비판적인 서평을 썼지만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빅토리아 책의 일본어판에 대한 비판적인 서평을 썼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서평은 번역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 원문의 내용을 번역자로서 더욱 감정적으로 표현한 문제 등 실로 세밀하고 총체적이면 서도 비판적인 서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시이 박사는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저자 자신의 경향이기도 하지만, 역자는

67) 앞의 주2) 『선과 전쟁』의 영어원서 제2판의 서문. p.IX. (한국어역 『전쟁과 선』 p.25)

그 경향이 더욱 강하여 그만큼 오류도 많아지고 있다⁶⁸⁾라고 하여, 자료의 취급과 관련된 일방적인 평가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곧 불교가나 불교교단과 관련된 논술에 있어 단언적인 선악의 기술방법에 대한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이시이 박사는 그러한 단언적인 기술로서 평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서평이후 이치카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곧 이시이 박사는 이치카와에 대한 논문을 기술함에 있어 이치카와가 근대의 전쟁 각 시기에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고 특히 태평양전쟁기에는 어떻게 애매한 태도를 취했는가 등에 대해 상세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시이 박사는 이치카와를 다루고자 한 의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불교는 본래 鎮護國家的이었다고는 하나 昭和 10년대부터 급격히 皇道佛敎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세계에 비할바 없는 國體를 자랑하여 성전 관철을 외치게 된 종교가들이 천황의 終戰 詔勅 및 미군 주둔을 계기로 평화주의, 민주주의로 간단히 바뀐 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는 자가 많았을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며 이와 같은 태도의 변화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전쟁책임을 발생시켰다고 생각된다. 거꾸로 말하면 그와 같은 태도의 변화를 가능케한 종교의 방식이 戰前, 戰時中에 왕성한 전쟁협력을 성립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후에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거듭하여 불교계의 전쟁책임을 추궁하고 있던 이치카와 하루젠(1902-1986) 자신 처음에는 BAC(Buddhist Anarchist Communism)의 입장에서부터 불교계의 전쟁협

68) 앞의 주5) 石井 서평, p.196

력을 비판하면서 特高에 의한 고문을 두려워하여 점차 애매한 문장을, 나아가 전쟁협력의 문장을 쓰게되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변화를 거듭한 인물이었다.⁶⁹⁾

이시이 박사의 전체적인 논조는 각각의 시기에 따라 인간이 다양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세밀하게 밝히고 있는 점으로, 이것은 빅토리아의 책에서 보는 2분법적인 입장에 대한 비판 내지는 보완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이시이 박사는 이치카와에 대하여 <1. 戰前に 있어 논조>, <2. 美英 開戰 이후 논조>, <3. 戰後の 전쟁책임 追及>, <4. 남겨진 것>의 내용으로 각각의 시기에 있어 이치카와의 입장을 상세하게 살피고 있다. 이렇게 각각의 시기에 있어 이치카와의 내면적 입장이나 실제 대외적인 활동을 살핀 뒤 이시이 박사는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쟁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성이란 있을 수 없다. 또 전쟁 책임을 추급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도 아니다. 그러나 종교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세계대전을 두 번씩 경험하고 현재에도 종교가 陰으로 陽으로 관여하고 있는 전쟁 분쟁이 세계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상,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는 자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며 또 많은 사람들도 휩쓸리게 할 것이다. 이치카와 하쿠겐의 전쟁책임의 추급의 시도는 손으로 더듬는 모색으로 불충분한 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그것은 轉向의 공동성과등과 함께

69) 앞의 주4) 石井, 「宗教者の戰爭責任 -市川白弦その人の檢證を通して」pp.226-227.

다음 시대를 위한 귀중한 ‘共有財’가 되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⁷⁰⁾

이치카와의 전쟁책임 관련 연구가 비록 온전한 상태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의 역할이 향후 다음 세대에게 있어 중요한 공동의 재산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시이 박사는 이치카와에 대한 상세한 논문에 이어 전쟁과 관련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⁷¹⁾ 이와같이 이치카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된 것은 빅토리아의 영향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치카와의 연구가 불교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하나의 의문으로서 새로운 학문적 방법을 촉구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한 것 같다. 그러한 예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시이 선생의 서평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조아킨 몬테이로의 논문이다.⁷²⁾

몬테이로는 이치카와 하쿠젠의 사상적 입장을 현대의 사회 윤리와 관련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가운데 일본불교의 결점을 지적하고 있다. 곧 그 결점이란 전후 전쟁책임추구의 선구자로서 이치카와가 한 역할에 대해 불교연구나 불교연구자의 입장에서 거의 무시된 것으로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일본의 불교가 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70) 앞의 논문, pp.247-248

71) 石井公成, 「不殺生と殺生禮讃 - 佛教と戦争の関係」 『現代と佛教』(末木文美士編), (佼成出版社, 2006)

72) ジョアキン モンテイロ 「市川白弦論・現代仏教における社会倫理の問題を中心に」 『駒澤大學禪研究所年報』第13・14號, (2002, 12). (조아킨 몬테이로는 1955년 브라질 출신으로 1986년 진종대국과의 승려가 된 이후 1996년 정토진종본원사파로 승적을 바꿈. 1998년 당시 駒澤大學 박사과정에 재학중에 있었다[그의 저서 『天皇制佛教批判』(三一書房, 1998, 7)에 의거])

그런 의미에서 전후 일본의 불교연구에서는 전후 사회에 있어서 <사상 책임>의 문제를 연구에 있어서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구분하고 적극적으로 관련시키는 관점이 본질적으로 결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후사회에 있어서 <사상책임>을 문제로 삼지 않은 불교연구의 주류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할 것이다.⁷³⁾

그런 의미에서 전쟁책임의 문제를 불교연구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으로부터 제외시켜버린 전후 일본의 불교연구 주류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그 최대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⁷⁴⁾

곧 몬테이로는 전후 이치카와에 의해 이루어진 전쟁책임추궁에 대한 연구가 주류의 불교학에 의해 거의 무시된 것은 불교가 올바른 사회가 되는 데 기여할 사상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몬테이로는 이치카와에 의해 거행된 불교계의 전쟁협력 논리에 대한 예리한 비판은 불교계의 사회윤리 확립에 공헌한 것은 물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문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입장성의 자각에 기인한 불교사회윤리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전후 일본의 불교연구에 있어 최대의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까닭에, 이치카와의 연구는 불교연구의 방법론에 관한 본질적인 공헌으로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⁷⁵⁾

73) 앞의 논문, p.21.

74) 앞의 논문, p.22.

75) 앞과 동일

이렇게 말한 뒤 몬테이로는 이치카와의 저작집에 의거해 전체 저술에 나타난 그의 사상적 입장을 고찰하면서 현대의 불교윤리로서 되살려야 할 점들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물론 몬테이로도 이치카와로부터 사상적 자극을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는 그와 입장이 다른 것도 함께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치카와가 제기한 많은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교사상의 주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치카와는 戰後 불교계의 전쟁협력을 연구한 선구자로서 비록 생존 당시 사회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지만, 오늘날 새로운 불교윤리의 관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비록 이러한 주목이 빅토리아의 저술을 계기로 촉발된 듯한 느낌이 들지만, 그의 생전의 노력은 이렇게 후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재평가되는 듯하다. 불교계의 전쟁책임, 불교의 새로운 사회윤리 등에 대한 그의 연구태도와 노력은 오늘날 현시점에서도 그 예지력이 돋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IV. 결어

일본의 근대불교계는 사회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전쟁협력에 가담하게 된다. 이러한 협력은 메이지 초기 극단적인 불교탄압으로서 폐불훼석을 경험한 불교계로서는 사회에 적극 협조해야 할 당위성을 가진 것은 어느 면에서 인정할 수 있더라도, 불교 자체의 성격이 국가불교, 천황불교로 나아간 것에 전쟁에 대한 책

임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된다. 곧 폐불훼석으로 곤경에 처했던 불교계가 그 난관을 벗어나 메이지정부의 국교로서 신도와 거의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자 보다 적극적으로 천황제불교 곧 황도불교의 방향으로 선회하여 신도 이상으로 천황을 숭상하는 불교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 천황제에 근거해 군사력 중심의 군국주의가 국가의 방향으로 정해졌을 때 불교계도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군국주의적 불교의 방향에 반대하던 불교가도 없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대세를 따르는 입장에서 불교계도 적극 전쟁에 협력하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불교계와 전쟁과의 관계에 대해 오늘날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브라이언 빅토리아의 『선과 전쟁』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불교계의 전쟁협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불교계의 전쟁협력과 관련해 빅토리아에게 적극적인 영향을 끼쳤던 전후 불교계 전쟁협력에 대한 연구자 이치카와 하쿠젠의 업적과 그에 대한 평가 등도 살펴보았다. 일본에서도 특히 『선과 전쟁』의 일본어판 번역이후 이러한 불교계의 전쟁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는 듯한 인상을 받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것은 지금껏 일본의 발전된 불교학이 그동안 일본 사회의 윤리 도덕 등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진정 불교학이 살아있는 사회의 윤리 도덕 정신을 새롭게 자극하여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보다 요청되는 것은 우리 학계에서도 좀더 일본 불교계와 전쟁에 대한 문제나 불교의 사회윤리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일본 불교학계가 일본 사회에 책임을 가져야 하듯이 우리의 불교계도 우리 사회에 책임의 일단을 짊어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하였고, 그러한 식민지의 과정 속에서 조선의 승유억불정책에서 벗어나 불교 독자의 윤리도덕을 제시하는 일이 부족하였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일본에서의 근대불교에 대한 연구에서도 특히 식민지 조선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지만,⁷⁶⁾ 이것은 앞으로 우리 불교계가 좀더 자주적으로 고찰 연구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불교와 전쟁을 살펴보았지만, 향후 이치카와 하쿠젠이 수행한 연구와 같은 사상적 철학적 관점에서 불교와 전쟁, 종교와 전쟁 등에 대한 연구도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76) 최근 식민지 조선불교와 관련해 일본 조동종 이치노헤 쇼코(一戸彰晃) 스님의 활동은 한일 불교간의 역사적 난제들에 대한 상호 이해의 계기를 만들고 있어, 좀더 주의와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치노헤 스님의 책은 최근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이치노헤 쇼코 지음, 『조선침략참회기-일본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 장옥희 옮김, (서울 : 동국대 출판부, 2013, 4).

참고문헌

- Brian (Daizen) A. Victoria, *Zen at War*, Weatherhill, Inc., New York, 1997;
(Second Editi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6,
- 브라이언·안드롤·빅토리아 著, 에이미·루이즈·쯔지모
트 訳, 『禪と戦争-禪仏教は戦争に協力したか』, 光人社, 2001, 5,
- ジョアキン 몬テイ로, 『天皇制佛教批判』, 三一書房, 1998, 7
- 市川白弦, 『佛教者の戦争責任』, 春秋社, 1970,
- 大谷栄一, 『近代佛教という視座-戦争・アジア・社會主義』, ぺりかん社,
2012, 3
- 吉田久一, 『近現代佛教の歴史』, 筑摩書房, 1998, 2
- 브라이언 다이젠 빅토리아 지음/정혁현 옮김, 『전쟁과 선』, 인간사랑,
2009, 11.
- 스에키 후미히코, 『근대일본과 불교』(이태승·권서용 옮김), 그린비,
2009, 9
- ジョアキン 몬テイ로, 「市川白弦論・現代仏教における社会倫理の問題
を中心に」 『駒澤大學禪研究所年報』제13·14호, 2002, 12.
- 石井公成, 「ブライアン・ヴィクトリア 著, 『禪と戦争 禪仏教は戦争に協
力したか』」 『駒澤短期大學佛教論集』第7號, 2001, 10.
- ———, 「宗教者の戦争責任-市川白弦その人の檢證を通して」 『岩波講座
宗教8 暴力 破壊秩序』, 岩波書店, 2004, 9
- ———, 「不殺生과 殺生禮讚-佛教와 戦争의 관계」 『現代와 佛教』(末木文
美士編), 佼成出版社, 2006
- 이태승, 「日本 明治時代の 廢佛毀釋의 展開와 그 原因에 대하여」(제45회

한국불교학회 추계발표), 2006, 11,

- ——, 「일본 明治時期의 佛敎의 전개와 近代佛敎學의 성립」, 『한국불교사 입문』, 지식산업사, 2013, 9
- ——, 「일본 근대에 있어 神道와 佛敎의 갈등」(서울대역사연구소 주최 국제학술대회발표), 2012, 11

On the Recognition of War in Modern Japanese Buddhism

—Focusing on the *Zen at War* and Ichikawa Hakugen—

Lee, Tae-seung

Uiduk University
Department of Buddhist Culture

With the Meiji Restoration in 1868, the new government adopted a strong anti-Buddhist attitude, and a movement to eradicate Buddhism and bring Shinto to ascendancy arose throughout the country due to the strong connections of Buddhism to the Shoguns. During the Edo Period of Tokugawa (1600-1868) Buddhism was supported by the state. The new Meiji government established a government bureau, the ShintōWorship Bureau (神祇事務局) to oversee religious affairs and to administer the government-ordered separation of Buddhism from Shintō. Through this process, the Meiji Restoration restored the power of the Imperial Household, which had been under the shadow of successive military governments in previous years. The *haibutsu kishaku* (廢佛毀釋; literally "abolish Buddhism and destroy Shākyamuni") during the Meiji Restoration, the most famous instance of the phenomenon, was an event triggered by the official policy of

separation of Shinto and Buddhism and caused great damage to Buddhism in Japan. It resulted in the destruction of Buddhist temples, images and texts, and Buddhist monks were forced return to secular life. The Buddhist traditions, however, fought hard to overcome national suppression, eventually earning equal status with Shinto by the mid-Meiji Period. Meanwhile, Japan opened its door to the world and encountered the impact of Western culture and technology, forging a modern nation. Together with a series of wars, a militaristic ideology developed in the Empire of Japan: that the military should dominate the political and social life of the nation, and that the strength of the military is equal to the strength of the nation. This militarism came to a climax in the Second World War and eventually to defeat in 1945. This article is to explore how Japanese Buddhism overcame the *haibutsu kishaku* and what kinds of roles it played to support Japanese militarism by focusing on the matter of war.

Zen at War focuses on the history of Zen Buddhism and Japanese militarism from the time of the Meiji Restoration through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postwar period. It describes the influence of state policy on Japanese Buddhism, and particularly the influence of Zen philosophy on the Japanese military. Brian Daizen Victoria, an American-born Sōtō priest, draws from his own study of original Japanese documents, but also uses the publications of Ichikawa Hakugen (市川白弦, 1920-1986), a Rinza-

monk and a scholar. In *The War Responsibility of Buddhists* (*Bukkyosha no Senso Sekinin*, 1970), Hakugen himself had been "a strong advocate of Japan's 'holy war,'" to which he later confessed, "I should not forget to include myself as one of those modern Japanese Buddhists who did these things." Victoria's book exploded onto the Western Zen scene in 1997 and has been a subject of controversy ever since. Statements of some of Western Zen's most revered teachers and masters supported Japanese militarism and nationalism.

A re-evaluation of Zen Buddhism's role in the Japanese wars of the Twentieth Century is long overdue and Victoria's book is but a first step in a long and ultimately painful process of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Zen. The book's great contribution is that it has succeeded, where others scholars have not, in bringing to public attention the largely unquestioning support of Japanese Buddhists for their nation's militarism. In response to "*Zen at War*" Japanese Buddhism started a campaign to receive apologies from leading parties within the Japanese Buddhist schools since 2001. This involvement was not limited to the Zen schools, as all orthodox Japanese schools of Buddhism confessed on supporting the militarist state. In the process, Japanese Buddhist academia demonstrated their reflection and responsibility on the matter, while Japanese scholars traditionally refused to face the existence of their social issues. It is also important for Koreans because

it gives u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reflect upon the present reality and how should be understood within the complex context of Japanese colonial rule. Beyond Buddhist ethical discussion, this raises important questions that connect to a new paradigm of ethics that transcends the views of both politics and history, across any sect, border, or country between Japan and Korea.

Keywords

Meiji Restoration, haibutsu kishaku, Modern Japanese Buddhism, the *Zen at War*, Ichikawa Hakugen, Japanese militarism and nationalism, War Responsibilities

✎ 투고일자 2013.7.30 | 심사일자 2013.8.29 | 게재확정일자 2013.9.4